

조합소식

제72차 운영위원회 개최

1 대한 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영식)은 지난 8월 8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7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 재해공제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박종학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조합은 보증업무가 주류를 이루는 운영을 해왔으나, 지난번 건산법이 개정되면서 조합도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역이 확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조합은 그동안 「일등 선진보증기관」, 「조합원사로부터 신뢰받는 조합」 등 여러 구호가 있었지만, 고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의 출자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일등 조합이자, 조합원사로부터 사랑받는 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합 임직원 여러분은 다양한 수익사업에 전력투구해 조합원사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종학 위원장은 또한 “앞으로 조합은 여러 분야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합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한 다음 “오늘 상정된 안건인 공제보험은 그동안 우리 조합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향후 수익성을 더욱 확대하여 업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부산설비건설회관 리모델링공사 추진 현황
-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 60주년 행사비 추가 분담금 납부
- △ 건설보증발전연구회 추진 경과 보고
-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동향 보고
- △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 강화 방안

트레이시 슈발리에 『진주귀고리 소녀』

박 주 영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남부지점

중 반부까진 너무나 지루했다.

간결하다 못해 너무나 짧은 듯한 문장에, 한장 한장 넘기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지루한 책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추천한걸까? 싫기까지 했다.

하지만 어느덧 책에 빠져서, 과연 그리트는 어떻게 됐을까?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그리트에게 어떻게 했을까. 궁금증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소설은

실존인물 베르메

르가 그린 “진주

귀고리소녀” 작품을

보고 허구로 지은 이야

기이다.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의 주

인공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상상만으로 이렇게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내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장을 덮은 지금, “진주귀고리소녀” 작품의 실제 주인공이 소설속의 그리트인것만 같으니... 그리트의 아버지가 실명 한 후 그리트는 베르메르

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된다. 베르메르의 아내인 카타리나와, 그녀를 꼭 닮은 딸, 코넬리아의 직접적이진 않지만, 무언의 모멸감과 감시.

그나마 그 둘보다 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트를 꼬~옥 감싸주지 않는 큰마님 마리아 틴스. 그리고 같은 하녀 입장이면서도 결코 그리트에게 너그럽지 못한 타네커. 베르메르의 고객이면서, 음흉한 반 라위번. 푸

쫓간 아들 피터. 이들이 주축으

로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리트는 침착하고

성실하여, 화실 청

소를 담당하게 된다.

화실청소를 시키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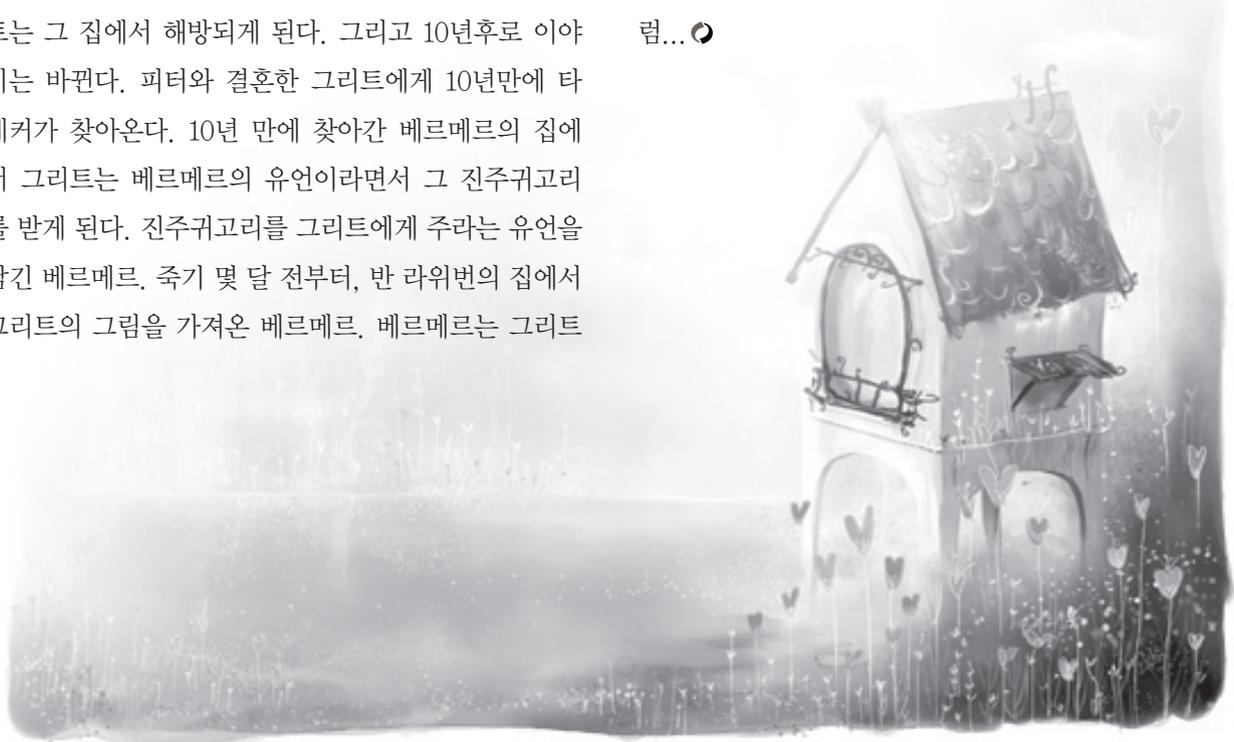
고용된 하녀이니, 그림을 그리기 위

해 배치해둔 물건들의 동선을 전혀 바꾸지 않고 청소하는 그리트에게 베르메르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은 물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뼈를 가는 일에서, 결국엔 화실 옆에 딸린 다락방으로 그리트의 거처가 이동되게 하는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덜렁거리고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부인 카타리나보다, 말없고 침착한 그리트에게 점점 호감을 갖게 되는 베르메르와, 베르메르의 묵직함에 끌리고, 왠지 모를 존경심을 갖게 된 그리트는 서로 알게 모르게 끌리게 된다. 청초하고 맑은 그리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베르메르 뿐 만이 아니다. 하녀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반 라위번과 푸쫓간 아들 피터 또한 그리트에게 관심을 보인다. 반 라위번이 그리트와 같이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베르메르가 그리트를 위함인지, 자신을 위함인지 그리트만 따로 그렸을 때, 바로 그것이 베르메르의 마음임을 알았다. 한마디 따뜻하게 말하지 않아도, 자신 때문에 곤란한 그리트를 전혀 감싸주지 않아도 하녀인 그리트에게 부인의 진주귀고리를, 그것도 귀까지 뚫게 해서 걸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그림의 모양새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딱히 꼬집어 표현이 안 된다. 그 진주귀고리로 인해, 그리트를 홀로 그림으로 인해 그리트는 그 집에서 해방되게 된다. 그리고 10년후로 이야기는 바뀐다. 피터와 결혼한 그리트에게 10년만에 타네커가 찾아온다. 10년 만에 찾아간 베르메르의 집에서 그리트는 베르메르의 유언이라면서 그 진주귀고리를 받게 된다. 진주귀고리를 그리트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긴 베르메르. 죽기 몇 달 전부터, 반 라위번의 집에서 그리트의 그림을 가져온 베르메르. 베르메르는 그리트

를 사랑했던 것일까? 그의 위치가 아니면 그의 무엇 때문에 그리트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리트는 그 귀고리를 팔아, 베르메르집에서 푸쫓간에 갇지 않은 외상값을 주고, 나머지 돈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퐁퐁 숨겨놓는다. 그 퐁퐁 숨겨놓은 다섯개의 동전. 그 동전은 그리트가 베르메르에게 가졌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엔 넘쳐나는 듯 하고, 존경이라고 표현하기엔 모자른 듯한 그 감정처럼 그리트의 마음속에 퐁퐁 숨겨져서 있을 것이다. 실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 “진주귀고리소녀” 이 그림이 “복구의 모나리자”라 불린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은 기법으로 그림이 그려졌고, 또한 그림의 미소가 오묘한 것이 닮았다는 이유로. 나에게는 “하녀 그리트”로 기억될 듯 하다.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진 그림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녀의 눈매가 슬퍼 보인다. 마치 그리트인 것처럼... ㉠



이문구 소설 『우리 동네』를 읽고

송진수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감사실

《우리동네 이씨》에 나오는 리낙천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용기 있는 왕따”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씨는 평소에 없어도 잘 살아왔던 TV, 선풍기, 전기밥솥 등의 대금이 나온 것을 보고 아깝게 생각한다.

그것도 영농 자금 융자 형식으로 들여다 놓은 것이라 더욱 배알이 꼬인다. 이것들이 자기의 불찰임을 인정하면서도, 세상 풍속에서 혼자만 외면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소설을 읽는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흔한 예를 들자면, 굳이 비싼 메이커 제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저렴하고 쓸모 있는 것을 고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명품이나 더 비싼 메이커를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랄까.

그리고 소설 앞부분에 참 재미있는 문구가 있었다. 확성기에서 징글벨이 나오는 것을 듣고, 리낙천의 부인이 “노래 제목 하나는 제소리 나게 붙였네. 징글징글현놈의 징글벨” 라고 말한 부분이였다. 언중유골이라고 했던가. 농담식의 말투로 들리지만, 그 안에는 크리스마스를 보러 가자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처지를 한탄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담겨 있다. 중간쯤에 나오는 윤선철네서 열린 도박판 이야기는 가장 인상 깊었다. 리낙천이 조합 서기로 있는 지중길에게 따지는 부분에서 나까지 속이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어쩌면 이문구는 리낙천을 통해 그 당시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대신 소리쳐 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온 나라가 산업화다 경제성장이다 하면서 정작 우리 농촌 사회는 뒷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껏 살아 온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게 만든 냉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의 글에는 농촌에까지 번진 망년회라는 것의 실태와 농촌 부녀자들의 관광 여행, 원칙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농민 우려먹기 식의 농협의 실상, 농촌 가정에서 일어나는 도박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는 드러냄에 그치지 않고 리낙천을 통해 따끔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을 읽은 느낌을 넓게 생각하면 60, 70년대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은 희생양이 되어 갔고,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좁게 말하면 이 글을 읽는 나도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는 리철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교훈이 담겨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이목이 제일 두려운 벌이라는 요즘,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비싼 옷을 사 입고, 더 고급스러운 차를 끌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소박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왕따가 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아닐까.☺